‘킬러 문항’ 자리에 ‘준킬러 문항’ 출제되나

정부 ‘킬러문항’ 배제 방침 따라
9월 모평부터 난이도 하락 예상
EBS 교재·기출문제 중요성 커져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올해 11월 16일 예정된 2024학년도 수능에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불수능’ 기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킬러 문항’을 배제하더라도 변별력 있는 수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장 올해 수능을 약 5개월 앞둔 출제진과 교육당국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결국 수능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닌지, ‘물수능’ 논란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킬러 문항을 직접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총리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 부총리까지 나서 ‘킬러문항 배제’라는 보다 구체적인 출제 방향을 공언한 셈이다.

이러한 언급들을 종합하면 결국 올해 수능 난도가 예년보다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윤 대통령에 이어 이 부총리까지 ‘킬러 문항’ 출제를 겨냥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물론 당장 9월 6일로 예정된 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에서도 킬러 문항은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변별력을 갖추는 공정한 시험이 돼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강조한 데 이어 이 부총리가 이날도 ‘적정 난이도’를 언급한 터라 킬러 문항 자리는 준킬러 문항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은 몇 년 만에 ‘불수능’ 논란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수능 논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는 관건이다.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킬러 문항을 피하려다가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평가원의 출제 방향과 학생들의 채점 결과가 빗나갔다는 점에 미뤄 실제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수능까지 평가원은 매번 평이한 수능을 냈다고 밝혔고, 학교·입시업계도 까다롭지 않은 시험으로 분석했으나 성적 통지 결과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하락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원이 킬러 문항을 배제한 가운데 최근과 같이 수험생들의 실력을 잘못 평가하는 상황이 겹칠 경우 변별력이 급격히 떨어져 ‘물수능’ 논란을 부를 수도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해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것 외에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체감난도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나 여러 접할 수 있던 자료에서 문항이 나와도 어려운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정부가 쉬운 수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와 EBS교재를 더 충실히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광주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정부 기조에 따라 출제 기관에서 수능 기출문제를 더 참고하고 EBS교재에서 지문을 그대로 따오는 등 연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기본적인 사항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개교 45주년 기념식 학교법인 성인학원(설립자 겸 이사장 박기인) 호남대가 지난 15일 문화체육관 대강당에서 개교 45주년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명문대학’ 도약을 다짐했다. ‘혁신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대학’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특성화 대학’이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호남대 제공〉

전남교육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연다

내년 5월 교육부와 공동 주최…세계적인 미래 교육 모델 ‘한자리’

전남교육청이 내년 5월 미래 교육 선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국제 행사를 연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 전남 일원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공동주최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국제행사와 연계해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세미나, 전시, 체험, 문화예술·국제교류, 교육 축전 등이 진행된다.

행사 예산은 90억원이 들 예정인데 전남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35억원을 우선 확보했다. 교육부는 박람회에 해외 교육 인사를 초청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미래 교육 선도 모델을 선보인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코딩, ‘챗지피티’(ChatGPT)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과 모델도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지역과 함께 행사하기 위해 22개 시군에 개최지 공모를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은 작은 학교가 많고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오히려 기회로 삼아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박람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지역이 중심이 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대부고, 미래 클라우드 인재 양성한다

아마존 코리아와 협약
AI 에듀테크 지원사업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김이수)와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교장 김정수)는 최근 아마존 코리아(Amazon Web Service·이하 AWS 대표 윤정원)와 광주·전남지역 고교 가운데 처음으로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AI 에듀테크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코리아 서울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클라우드 컴퓨터 분야 기술 지원과 AI 에듀테크 개발, 미래 클라우드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AWS코리아는 협약에 따라 조대부고 학생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AWS서비스로 구현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학생 교육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윤정원 대표는 “AWS 코리아는 조대부고와 협력으로 높은 수준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에듀테크를 활용해 미래 교육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대부고측은 AWS코리아 지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하여 수업과 학습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이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AWS의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디지털 전환시대 미래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습자가 인공지능 튜터에게 질문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멀티미디어, 실감형 컨텐츠 등에 손쉽게 접근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AI를 활용해 학생들은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며 교사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나 단순한 정보전달은 AI에게 맡기고 학생들과 감정적 소통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김정수 교장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 시장 점유율이 높은 AWS와 협약을 통해 전국 최고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로 발돋움하리라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진학체험 ‘꿈꾸는 공작소’ 성료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는 2023학년도 ‘꿈꾸는 공작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 행사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고교-대학 연계 진학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다.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는 ‘개성 있고 센스 있게 만드는 패션 액세서리 디자인’을 주제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2차례씩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4회 과정에서는 ▲재봉틀의 원리와 봉제법 습득 ▲PVC 소재 활용 손잡이가 달린 투명한 썸머 스몰백과 카드지갑 제작 ▲친환경 소재 타이백 소재 활용 패션 클러치백을 제작했다.

또 5~8회 과정에서는 ▲금속재료와 주로 쓰는 공구 용도 습득 ▲맨드렐을 이용한 반지 성형 ▲핸드피스를 이용한 연마 등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는 학문과 직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 적응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적 디자인 감성을 유도하고 3D 모델링과 프린팅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을 통해 패션의류, 금속, 귀금속 및 패션 액세서리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윤영기 기자 penfoot@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